

2014
SPRING
vol.07

차이를 인정하는, 사이를 찾아가는 문화

사물함

낮선아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608-801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 051)745-7244(7262~7264)
FAX : 051)744-7708 www.bscf.or.kr

사물함

차이를 인정하는, 사이를 찾아가는 문화

낮선아침



나를 담는 공간

언젠가 우리와 그들이 아닌
너와 나 모두가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사물함'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 본문 내용 중 -

방관자

배가 전복되어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고도
먼 산을 쳐다보는
그러나 그들은 범법자가 아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부르짖는 사람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방관자
대한민국 재벌 중 나눔의 글도 뜻도 다 안다.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가지만
예수와 부처의 뜻은 알아도 행하지 않는다.

누가 저승에 가니
어느 재벌은 거지가 되어 있고
어떤 신부는 암행어사가 되어 있다더라.

부메랑
작용과 반작용
급부와 반대급부
인과응보

이상두_ 지금까지 직접 쓴 시가 100여점에 달하며 힘든 삶속에서도 글쓰기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계신다. 다음에는 에세이에 도전하고자 한다.



CONTENTS

BUSAN CULTURAL FOUNDATION
2014 SPRING vol.07



나를 담는 공간

언젠가 우리와 그들이 아닌
너와 나 모두가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사물함'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 본문 내용 중 -

발행일 2014년 5월 31일 발행인 남승우 편집기획 이만경
편집위원 장병운 김기태 김현수 서상훈 박우신 이재안 이민아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051-745-7264
표지사진 김정식 내지삽화 예경수 기획·취재 김상현 윤진서 편집·디자인 김수인
제작 효민디앤피 051-807-5100 www.hyomindnp.com

들어가는 글

04 희망의 사물함 이필숙

낮선아침 수기

06 내마음의 보석상자 박우신
08 그들의 사물함에는 진현

낮선아침 작품. 하나

10 시 : 그냥, 이방인 이상두, 서상훈
12 그림 이은석

커버스토리

14 기획 : 노숙인과 사물함 문원섭
18 취재탐방 : 내 안의 모든 떨림이 공존한 오후 8시 김수현

연재만화

22 사물함 돌려막기 예경수

낮선아침 작품. 둘

26 시 : 달 김원석

낮선아침 징검다리

27 부산지역 영화관 이야기 김영광
30 희망나눔 세차장 방문기 김동훈
34 김씨의 익숙한 하루 김OO

책이 있는 여울

36 가난한 휴머니즘 정영민

낮선아침 정보

38 식사정보
40 응급잡자리 현황
42 찾아가는 영화관 상영작
44 일자리 정보

제작리뷰, 광고

낮선아침은 아침햇살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낸 말입니다.
길든 일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경이롭게 공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감을 향한 끊임없는 모험이 있는 아침입니다. 조금은 낯선 듯,
아침을 더 새롭게 꿈꿀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여행자가 될 것입니다.

희망의 사물함



유난히도 차갑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나고
움츠려있던 우리의 생각과 몸도 활짝 펼 수 있는 봄이다.
우리의 봄은 어떨까? 따뜻하다, 새롭다로 시작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기분을 만끽하고 시대에 발 맞춰 움직이고
살아갈 때도 추운겨울이 지나고 봄이오고,
여름이 와도 따뜻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계층들이 있다.



어느날 오후 갑자기 후줄근히 비가 내리고 있다. 봄비다.
종로5가에서 회의를 마치고 서울역으로 가는 도중에 버스
에서 내리자마자 쏟아지는 빗줄기를 감당하기 어려워 서울역
지하도로 뛰어들었다.

그 곳에 나에게는 낯설지 않은 광경을 보게된다. 많은 사람
들은 그저 지나가곤 하지만 나는 박스하나하나를 관찰하게 되
고 옷가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눈여겨본다. 그러
다가 어떤 아저씨한테 욕을 얻어먹기도 하면서 외면하지 못하
는 자신을 본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과 동시에 “넌 무엇
을 하는 사람이냐?”라는 상기된 얼굴로 질문을 던진다. 그토
록 많은 시간들을 이 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고
하는데 저들은 왜 여기에 누워있을까? 과연 우리들은 진정으
로 사랑하고 위로 했을까? 하는 강한 의문이 내 마음을 답답하
게 만든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자신감이 없어지고 손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은 지금까지 산다고 아등바등 했지만 아무런 소
득이 없을 때 철저하게 허무함을 느낀다고 했다.

인터넷기사를 자주 들여다본다. 인터넷기사에는 기사 본문
과 함께 네티즌들이 그 본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
한 댓글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현 시대의 가치관, 이념들
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노숙인에 대해 항상 찾아
본다. 작년에 너무나도 공감되는 베스트댓글을 보았다. 노숙
인에 대한 안 좋은 시선에 대한 기사 본문의 댓글에 “노숙인들
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다. 그들은 1시간 이상을 걸어서 무료
급식을 하는 곳을 찾아 30분 이상을 기다리고 줄을 서서 밥을
먹는다. 그리고 또 1시간 이상을 걸어가서 자신이 머물던 곳
에 있다가 또 집을 나선다. 이러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절
대 게으르지 않다. 게을러서 저렇게 산다! 보다는 현 사회가
그들의 자활에 있어서 어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지.. 편
견의 틀을 벗어나 우리 모두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한
다”고 적혀 있었다. 공감가는 말이였다. 계속적으로 일을 찾
아 해매도 편견 속에 사업주들은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 이러
한 일들이 여러 해를 반복하면서 이제는 그저 주어지는 시간

들을 꾸역꾸역 채워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의
문밖에 없다. 삶에 정답이 도대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광경이 하나 있다.
시장바구니다. 바구니 안에 비닐봉지가 사물함이 되었다.
어쩌면 저렇게 사물함을 만들어 밀고 다닐까? 여러 가지 생각
을 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아저씨는 아직도 겨울옷을 벗지 않
고 있다. 우리는 봄이 시작되고 여름이 왔는데도 말이다. 그
래서 아저씨한테 다가선다. “왜 이렇게 계십니까?” “식사는 하
셨어요?”하면서 가지고 있는 빵을 내밀지만 욕을 하신다. 나
의 소개를 하고 “저와 함께 살 수는 없을까요?” 말하고 싶었
는데 결국에는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선다. 항상 저 분들을
위해 가슴앓이만 하는 이유는 저분의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너무나도 부족할 뿐이고, 현
실의 나약함이 처절하게 나의 몸과 마음을 때리고 있다.

그래서 희망담은 하우스에 하얀 백색의 사물함이 가지런히
짜여져있다. 누구든 언제나 머물 수 있고 자신의 소중한 옷가

지, 신발, 그리고 가족사진..등을 보관하는데 넓고넓은 세상
중에 유일하게 자신의 물리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이기도
한다.

지금 18년 동안 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영적·육체적·경제적 모든 것을 이 분들을 위해 투자를 했다.
그런데 지금도 사물함이 비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겨
울에는 꼭 차여진 사물함이기도 하지만 봄이 오면서 하나둘씩
비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내 채워진다.

1,700명의 입소자들이 희망하우스안의 사물함에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채우고 생활하다가 다시 짐을 싸서 세상으로 향
한다. 희망의 콧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싶은
데 아직 많이 모자란 부분이 많다. 이 땅의 길거리에 사물함이
만들어져 희망의 미래를 정리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필숙_ 부산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사회복지법인 자성 이사장 금정
희망의집 대표

내 마음의 보석상자

며칠 전 쪽방상담소에서 지금 여기의 삶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좌가 있었는데, 아래 글은 강사님이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읽어주신 내용입니다.

“

어느 날 지나가던 행인이

거지에게 다가와서

“지금 깔고 앉아 있는 상자를

열어 본적이 있소” 하고 물었다

”

며칠 전 쪽방상담소에서 지금 여기의 삶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좌가 있었는데, 아래 글은 강사님이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읽어주신 내용입니다.

거지는 늘 하던 대로 모자를 앞에 두고 상자 위에 걸터 앉아 동냥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행인이 거지에게 다가와서 “지금 깔고 앉아 있는 상자를 열어 본적이 있소” 하고 물었다. 거지가 없다고 대답하자 행인은 한번 열어 보라고 한 뒤 사라졌다. 거지는 “왜 열어보라고 했을까”하고 궁금해 하며 상자를 열어보니 보석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 다음 긴 강의가 있었고 “우리도 마음 상자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열어보는 노력을 하자”고 한 뒤에 끝마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생각해 본적이 없는 ‘내 마음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또 새로 넣어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떠올렸습니다.

나도 그 거지와 마찬가지로 평소에 해 온 대로 몸에 배인 습관대로 편리함만 좇으며 세월만 보냈다는 사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은 하찮게 여기고 가지고 있지 못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돈, 돈하며 항상 부족한 것에 불만을 갖고 주눅이 들어 살았습니다.

주신글 교정없이 그대로 실었습니다.

박우신_ 시력이 좋지 않아 글을 읽는 것이 힘들지만 상담소의 ‘희망의인문학’과 ‘낯선아침’ 활동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글을 읽고 쓰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람보다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V에서 매일 지겹도록 보는 부정과 비리, 잔혹한 범죄, 유괴 따위도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돈 이야기 뿐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부산진역 무료급식소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나와 사는 형편이 비슷한 처지이지만 언제보고도 미소를 잃지 않고 동생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친구의 마음상자에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는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밝고 행동도 당당했습니다. 그 순간 나만 생각하면서 항상 부족한 돈에 마음을 빼앗겨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불만과 조바심을 내며 남의 눈치를 필요이상으로 많이 보는 나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돈의 그림자에 속을 것인가? 언제까지 내 밥그릇에 머리를 박고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

이제는 머리를 들어 이리저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지며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넓은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돈이 내마음의 보석상자를 잡아 먹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지켜가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사물함에는



“

그들에게 있어

우리나라의 계절은 최악의 조건이다.
사계절이라는 다양한 계절이 있음에
웃가지만 하더라도 부피는 엄청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사물함을
활용하기엔 많이 버거웠으리라.



나는 응급잠자리(하룻밤 잠을 자는 공간)를 이용하는 노숙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누구보다 현장에 있지만 내가 본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려한다.

‘사물함’의 사전적 의미는 군대, 학교 따위에서 병사나 학생들이 제각기 물품을 넣어 둘 수 있게 만든 곳. 즉, 개인의 물건 보관함으로 순화되고 있다.

응급잠자리를 근무하면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사물함을 보았고, 관리를 한 경험이 있다. 사물함 속에는 주로 옷가지, 우산, 약, 안전화 등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보관되고 있는데 어떤 이는 그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남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공간의 차이는 개인의 성향도 있겠지만 그들이 생활한 노숙의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들에게 있어 우리나라의 계절은 최악의 조건이다. 사계절이라는 다양한 계절이 있음에 웃가지만 하더라도 부피는 엄청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사물함을 활용하기엔 많이 버거웠으리라.

응급잠자리 이용규정상 관리적 차원에서 사물함을 비우고 다시 되돌아보면 어찌나 미안한지... 찾으러 오지 않는 이의 사물함속 주인 없는 물건을 볼 때가끔씩 코끝이 찡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사진이 나왔을 때는 그들도 과거에는 한 가족의 아버지고 남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 없이 저리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포장을 채 뜯지도 않은 새 옷이 나올 때면 언젠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기 위해 아껴뒀을 거라는 생각에 선뜻 비우지 못한다. 정작 그 옷의 주인은 아무런 소식도 없는데 말이다. 이내 속으로 말한다. ‘한번이라도 입어보시지 그랬어요.’라고 …….

그냥 마음이 무겁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속담이 있듯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을 뿐.

이번에는 거리노숙인의 사물함을 들여다볼까 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말아야 할 것이 사물함의 보관기간이나 용도에 따라 그 쓰임새는 다를지라도 단지 시설이용자들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거리노숙인의 사물함까지도 생각을 넓혀 보아야한다. 어떤 이는 대형마트 사물함에 보관하기도 하고 겨울이불이나 부피가 큰 침낭, 바닥을 깔 수 있는 박스를 자신만 알 수 있는 비밀공간에 보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장소 또한 거리 노숙인에게 는 사물함이 될 수 있다.

이렇듯 노숙인에게 있어 사물함은 그들의 기본 생필품을 보관하기도 하고 일용직(노동)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도 하며 추운 겨울을 함께 날 수 있는 물건을 보관하는 가장 작은 창고임에 틀림없다.

그냥

어디론가 가고 싶은데
시계는 새벽 3시
부엌에 나가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
도로 누웠다. 잠은 오지 않고

무엇이 안정을 잃게 되었나!
외로움이다. 고독이다.
매일 겪는 바이지만
벗어나지를 못한다.

서글프다.
어제는 아는 형님이 죽었다고 전화가 왔다.
그래도 한 번씩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편안해졌을까

대부분의 인간은 외로울 테고
지금은 행복에 겨운 사람도
짧은 시간이나마 고독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소주 한 잔을 비웠다.

이상두_ 지금까지 직접 쓴 시가 100여점에 달하며 힘든 삶속에서도 글쓰기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계신다. 다음에는 에세이에 도전하고자 한다.

신발을 신고 무작정 걸었다.
사람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슈퍼 평상에 앉아 담배를 피워본다.
허공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방에 들어가면 또 나오고 싶을 테고
그냥 평상에 앉아 있다.
자전거를 탄 아주머니가 지나간다.
부럽다. 목적이 있는 듯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나도 목적을 가져야 할 텐데

방에 들어가기 싫다.
그냥 무턱대고 앉아 있다
그냥 그냥 술병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



이방인

밤새껏 차디찬 지하도 뉘인 몸뚱인
천근만근인데 아침을 알리는 걸음들은 나를 깨운다.

화장실 세면대에서 고양이 세수 마치고
성급히 나오지만 갈 곳 잃은 나는 광장을 서성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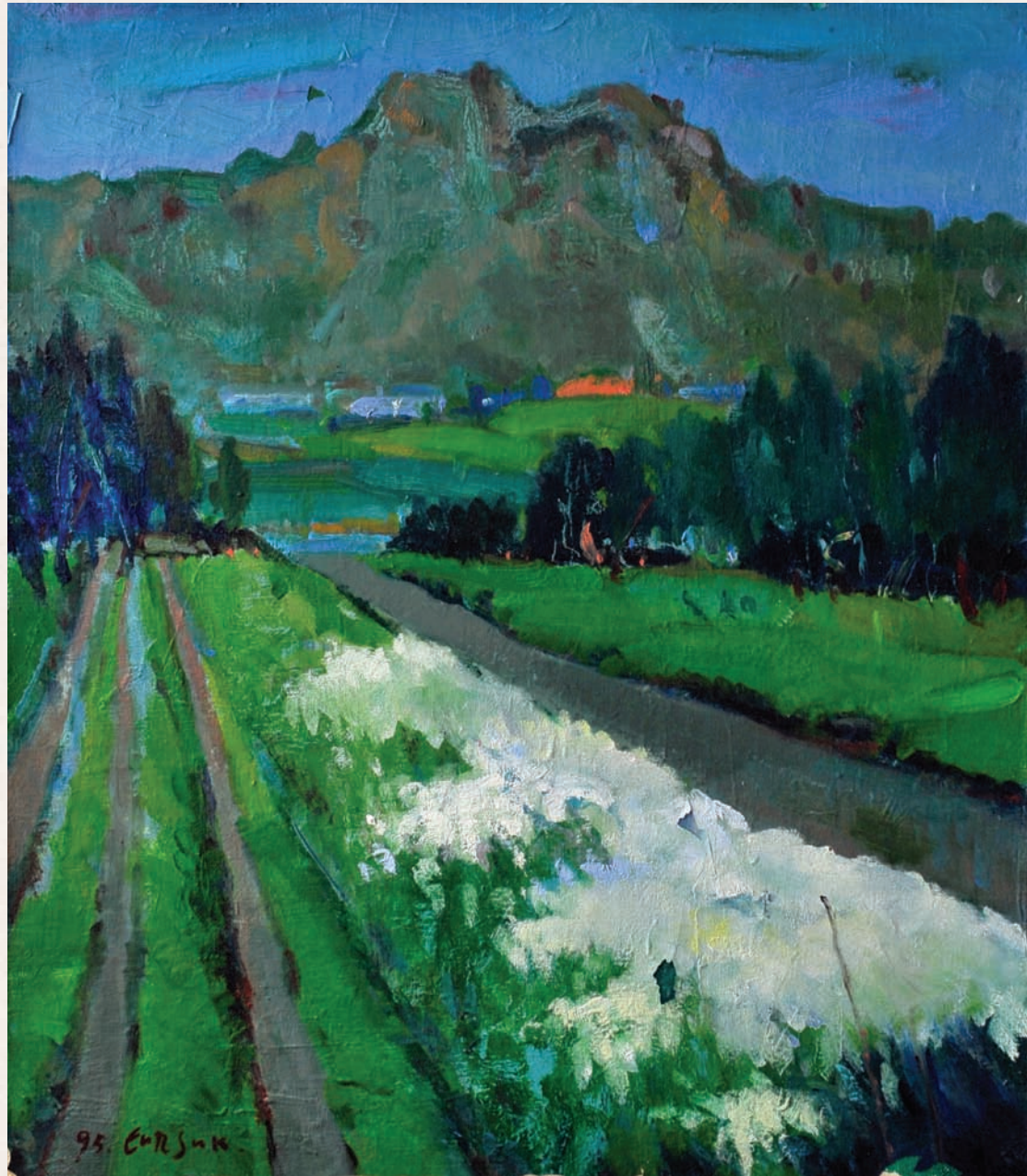
저들의 바쁜 걸음들은 어디로 향하는걸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일까
아니면 그리운 가족과의 만남일까
그도 아니면 연인과의 즐거운 데이트일까

찹디 찹은 콩초 입에 문채
갈 곳 잃어 허둥대는 나는

저 무리에 속할 수 없는 이방인가보다
세상에서 잊혀진...



서상훈_ 젊은 시절 일이 잘 안 풀려 생과 사의 기로에 섰을 때 금정희망의집을 만나 다시 삶의 활력을 찾았으며 지금은 서설 근처 여인숙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 쓰기를 좋아하여 금정희망의집 시 동아리에서 활동 중에 쓴 작품을 낮선아침에 꾸준히 기고중이다.



유화



강변 (2014, 38X48cm)

작가 이은석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 노인들과의 그림수업이 재미
있으시다는 이은석(본명:이덕길)님의 담배 연기에 인생의 고단함이
묻어난다. 올해는 꼭 개인전이 열리기를...



노숙인과 사물함

요즘과 같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사회로 갈수록 더욱 사물함이라는 것의
필요성과 이용도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일정한 주거나 문화시설 등을
극히 이용하지 않는 노숙인에게
사물함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사물함’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고등학교시절 집에서 40분 거리에 있던 산중턱의 학교를 교과서와 각종 참고서, 3개 도시락(아침, 점심, 저녁)을 가지고 매일 걸어 다니던 시절에 1학년 2학기쯤에 학교에서 마련한 사물함으로 책을 학교에 두고 다니면서 가벼운 책가방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또한 개인적인 물건을 넣어 둘 수 있어서 참으로 요긴한 물건이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군대 시설의 사물함(관물대)은 군인정신을 보여주기 위하여 각종 보급물품과 개인물품을 소위 ‘각’을 잡아 정리하고 수시로 상습자나 간부들에게 검열을 받아서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이 사용하여 지극히 개인적인 사물함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또 하나의 군인정신을 확인하고 인정받는 도구였던 기억이 있다.



이렇듯 나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물함 하면 떠오르는 기억과 추억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기억속에서도 사물함이라는 물건의 존재는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을 두고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 가지 장소나 상황에서 사물함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흔히 대중목욕탕, 지하철역, 공원, 수영장, 대형마트, 학교, 직장, 관공서 등에서 과거에 비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사물함을 접하고 있으며 요즘과 같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사회로 갈수록 더욱 사물함이라는 것의 필요성과 이용도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 예상한다.

그렇다면 일정한 주거나 문화시설 등을 극히 이

용하지 않는 노숙인에게 사물함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들에게 사물함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물건이며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물건일까?

이러한 부분에서 사물함은 노숙인의 인권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수용보호가 목적이었던 대규모의 노숙인보호체계에서는 노숙인의 인권이라는 것은 무시되었으며 그에 따라 모든 복지서비스에 집단화가 만연하여 노숙인의 인권이라는 것은 오히려 집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치라는 생각이 당연시 될 만큼 고착화되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의 기준이 변화되고 인간적인 삶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사회복지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보호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노숙인에 대한 인권도 마



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이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노숙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비록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게도 인간적인 삶이 가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장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민간이 지원할 수 있는 관계법령과 지침이 마련되게 되었다.

따라서 노숙인복지시설은 관계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면에서 노숙인의 사물함은 ‘그 노숙인이 어느 시설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혹은 개인적인 성향, 장애, 연령, 성별, 종교, 생활방식 등에 따라 차별을 두기 보다는 인간으로서 지극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써 당연히 있어야 하는 물건으로서의 가치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숙인복지시설의 두 가지 시설 유형인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가지는 ‘사물함’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생활시설(재활 및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의 경우는 대부분 장기보호를 받고 있으며 개인적인 물건을 다수 가지고 있고 단순보관을 목적으로 하거나 본인에게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분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생활 실안에 개인적인 옷장과 사물함이 배치되어 있으며 잠금장치는 본인 스스로

관리가 가능한 분들은 잠금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실안에서 보관이 어려운 물건은 별도의 공간에 잠금장치를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퇴소자나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본인 스스로가 관리하기 어려운 분들은 사회복지사가 사무실이나 창고에 잠금보관을 하고 있다.

둘째, 이용시설(자활시설 및 쉼터 등)은 생활시설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주로 거리생활이나 자활활동으로 개인이 현재 꼭 필요한 소지품이외의 개인보관물품은 계절이나 사용용도, 사용빈도에 따라 보관이 목적인 물건으로 잠금장치가 되는 사물함이 필요로 하게 되며 이것은 노숙인 혹은 생활인의 경우 주로 생활하는 시설이 ‘생활시설(재활 및 요양시설)이나, 이용시설(자활시설 및 쉼터 등)이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서 어느 시설에 거주하더라도 ‘사물함’은 꼭 가져야 하는 필수생활물품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노숙인의 권리로서 가져야 하는 ‘사물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숙인의 궁극적인 비밀보장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노숙인복지시설의 사물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입소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해야하며 이것은 곧 노숙인이 자신을 노출하기 꺼려하는 부분과 자기선택권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됨으로 좀 더 노숙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인사생활보장이 가능한 ‘사물함’이 지원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노숙인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따라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 의한 인간다운 보호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3년 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에 「A 시설 및 환경」영역의 「A4. 생활공간이 개별적으로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지표로 평가내용 중 ②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개별 사물함과 옷장이 있다. ③옷장, 사물함 등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물품 보관공간이 있다. 라는 항목으로 노숙인에 대한 인권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복지서비스기준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은 「E 생활인의 권리」영역의 전체 지표가 노숙인의 인권이라는 것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노숙인의 인권에 대한 보호는 강화될 것이지만 현실적인 시설운영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숙인의 인권이라는 것을 좀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숙인이라는 용어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 가지는 인간다운 권리에 기준한 복지서비스와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되고 위축된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서비스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노숙인복지시설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증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노숙인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다각적인 지원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 나라의 노숙인은 희망적인 ‘사물함’에 대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안의 모든 떨림이 공존한 오후 8시



지잉-지잉-
비어있던 나의 금요일 시간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부산문화재단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정말 나에게는 생소한 경험으로
다가올 내용을 전해주었다.



바로 노숙인과의 인터뷰를 부탁하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2013년 여름 즈음에, 부산진역의 천막에서 노숙자 분들에게 무료로 화채를 나눠주던 봉사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노숙인’이라는 단어는 그다지 생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익숙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때는 노숙인들과 깊게 대화를 나누지도 못하고 그저 간단한 인사만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노숙인과 이야기를 나눠본다는 것에 신경이 쓰이면서도 웬지 그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은 욕구(?)가 더 강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뜻 하겠다고 나섰다.

혹시나 말주변이 없는 내가 노숙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내 작은 행동에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지. 아주 사소한 걱정부터 해서 점점 꼬리를 무는데……. 어휴! 부산역에서 만나기로 한 8시. 심장이 조금씩 빨리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그래도 내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심장이 덜 빨리 뛰었던 것 같다. 사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노숙인 분들 데리고 와주시기로 한 분, 나와 같이 인터뷰에 동행하게 된 김상현 오빠. 이렇게 세 분이 나와 함께 있어주셔서 떨림이 작았다.

인터뷰한다고 느끼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 텐데……. 안 그래도 오늘 이야기를 나눌 분은 낯선 사람한테 경계가 매우 심하고 인터뷰를 하더라도 차갑게 대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조금 까칠한 성격을 가지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웬지 겁부터 났다.

그래도 어린 학생이 왔으니 조금은 부드럽게 해주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품고 나를 포함한 세 명,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어주실 사진작가님과 함께 장엄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주인공 <이○○>님에게 다가갔다.

웬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가가면 정말 화내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화가 났었다. 사진작가님의 카메라를 보고 큰 소리를 치며 무슨 동물원 원숭이 구경 왔냐는 식으로 화를 내시는데 순간 아차 싶었다. 그 분에게 초면부터 실례를 범한 것 같아 죄송했고 이제 어찌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막해지려고 했다.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생각으로 다가 갔는데 어째 첫 시작부터 불안 불안했다.

김상현오빠와 나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노숙자 분께서 라면들을 풀어헤치면서 눈에 익숙한 두 명의 사람(담당 선생님과 주인공을 섭외하신 분)에게라도 이야기를 하시니 분위기가 풀렸다.

물론 노숙자분은 사전에 제대로 통보를 못 받으셨는지 이런 인터뷰 자리가 있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왜 오냐는 식으로 화를 계속 내시긴 했지만 담당 선생님에게만 눈을 맞추며 자신의 친구 이야기와 요즘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요즘 사회 정보 등 참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분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 정말 아는 지식도 많고, 사회 문제에 관심도 많아 대학생인 나로서는 배워야 할 부분이 많

아주 사소한 걱정부터 해서
점점 꼬리를 무는데…….
조금 까칠한 성격을 가지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웬지 겁부터 났다.
그래도 어린 학생이 왔으니
조금은 부드럽게 해주지지 않을까?

일반 시민들은
카드빚을 못 갚아서
카드로 돌려막기 한다고 치면
노숙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걸
사물함 돌려막기라고 표현한다.
생각해보지도 못한
사물함 돌려막기라는 단어가
참 재밌지 않은가?

았다. 중간 중간 이야기하면서 웃는 모습
이 참 친근했다. 나와도 조금 눈을 맞
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분
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많이 말하고 싶
었는지 묻지 않아도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귀엽기까지! 하하. 하지만 그 분의 이야
기를 들으면서 같은 여자로서 화가 나는
부분이 많았다. 그저 털털하고 사람과
이야기를 좋아할 뿐인데 다른 노숙인분
들에게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도 성적 모욕감을
당하기도 여러 번이라고 하셨다.

또한 우리처럼 인터뷰를 하러온 사람
들에게도 많이 상처를 받으신 것 같기도
했다. 인터뷰를 하러 와서는 필요한 질
문만 하고, 이런 인터뷰들이 나중에는
어디에 나오는지 등 정보를 알려주지 않
고 자기 이익만 챙겨서 간 것이다. 이런
안 좋은 경험을 가진 분이니 우리가 아
니꼽게 보이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처음 우리가 갔을 때 인터뷰라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셨던 모습과 다르게 다양
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분위기가 너무나
도 잘 풀렸다. 나 혼자 속으로 ‘에이, 괜
히 겁먹었네.’라며 안도 아닌 안도를 하
고 있는데 아뿔싸! 착각이었다.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작스
레 감정에 변화가 오셨는지 마시고 있던
음료수를 집어던지고 손에 가득한 짐을
들고 어딘가로 가려고 하셨다. 어찌지,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당황한 채로

있다가 우리가 쫓아가서 다시 상황 설명
을 하며 그 분의 기분을 맞춰줄려고 애
썼다. 이대로 가버리면 어쩌나, 낯선 아
침에 올려야 할 글인데 이렇게 끝이 나
나 싶었다. 타이르고 타이른 끝에 다시
진정되었는지

“어차피 너희가 알고 싶은 거는
내가 왜 이 생활을 하는지, 일은
안하는지 그런 거 아니냐?

이 말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
문을 했구나.’라는 생각에 이기적인 사
람들에게 화가 났다. 우린 그런 인터뷰
를 하러 온 것이 아닌데 아무래도 오해
를 하고 계신 듯 했다. 이러니 우리에게
화가 나셨지. 어쩌다 상황이 부산역 매
표소 옆에서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원래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물
함>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제 지난겨울 옷장에 보관했던 봄과
여름옷을 차차 꺼낼 시간이 다가왔다.
노숙인 들에게는 어떻게? 당연히 이들
도 겨울에 보냈던 두껍고 큰 이불들이
있을 테고 그 외 필수품들이 있었을 것
이다. 겨울이 끝났다고 해서 그 무거운
짐들을 버릴 것도 아닐 텐데 그 많은 짐
들은 대체 어디에 두는지 이야기를 하려
고 했던 것이다.

노숙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이런 점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낯선 아침에
글을 올리면서 조금이라도 노숙자들의
생활을 알리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찾아왔다고 말을 하니 이제야

기분이 다 풀리셨는지 다시 또 웃으면서
정겹게 이야기를 해주셨다.

“지금은 아는 사람 집에 갖다
놔지. 이런 역 같은 곳에는 1500
원 이렇게 하는데 비싸서 못 넣고
교회에도 짐을 놔두기도 하지.
그런데 나는 거의 짐을 다 들고
다녀서 다른 노숙자들보다 짐이
더 많아. 사람들이 동래에 있는
마트는 2~3일 정도 보관된다고
해서 거기도 자주 이용하지. 보
관기간이 얼마 안 남으면 다른 칸
으로 옮기면서 말기는데, 엄청
오래 전에 짐 맡겨 놓고 폐기된
짐도 있어. 열쇠는 아직 가지고
있지만.”

(정말 2012년이라고 적혀진 열쇠가 있
었다.)라며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시민
들은 카드빚을 못 갚아서 카드로 돌려막
기 한다고 치면 노숙인들 사이에서는 이
런 걸 사물함 돌려막기라고 표현한다.
생각해보지도 못한 사물함 돌려막기라
는 단어가 참 재밌지 않은가?

지금은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서 짐이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린 몸에 한
손 가득 짐을 들고 계셨다. 이렇게 많은
짐을 들고 다니는데 잃어버리고 다니시
지는 않느냐고 하니,

“많이 잃어버렸지. TV 보려고
쓰는 휴대폰 충전해놓는 사이에
내가 졸았거든? 그때 휴대폰만



딱 흠쳐간 거야. 나한테 배터리
랑 충전기가 있는데 쓸모도 없는
걸 왜 흠쳐갔는지. 그래도 뭐 중
요한 물건은 없어서 잃어버려도
크게 신경은 안 써.”

끝으로 “많이 예민해서 또라이처럼
굴었어. 내가”라며 미안해하시는 모습
을 보이시며, 우리는 앞으로도 건강 챙
기고 조심하라는 말로 훈훈하게 마무리
되었고 다음을 기약하며 그 분은 차츰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다.

중간 중간 예상 밖의 행동으로 많이
당황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간 <사물함>
주제랑은 다른 이야기도 많이 들어 인터
뷰라는 의미가 사라졌다. 인터뷰를 하
겠다고 찾아가서 노숙자들의 인권과 사
생활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를
했고 노숙자라는 단어에서 오는 부정적
인 생각을 했던 것에 반성을 하게 되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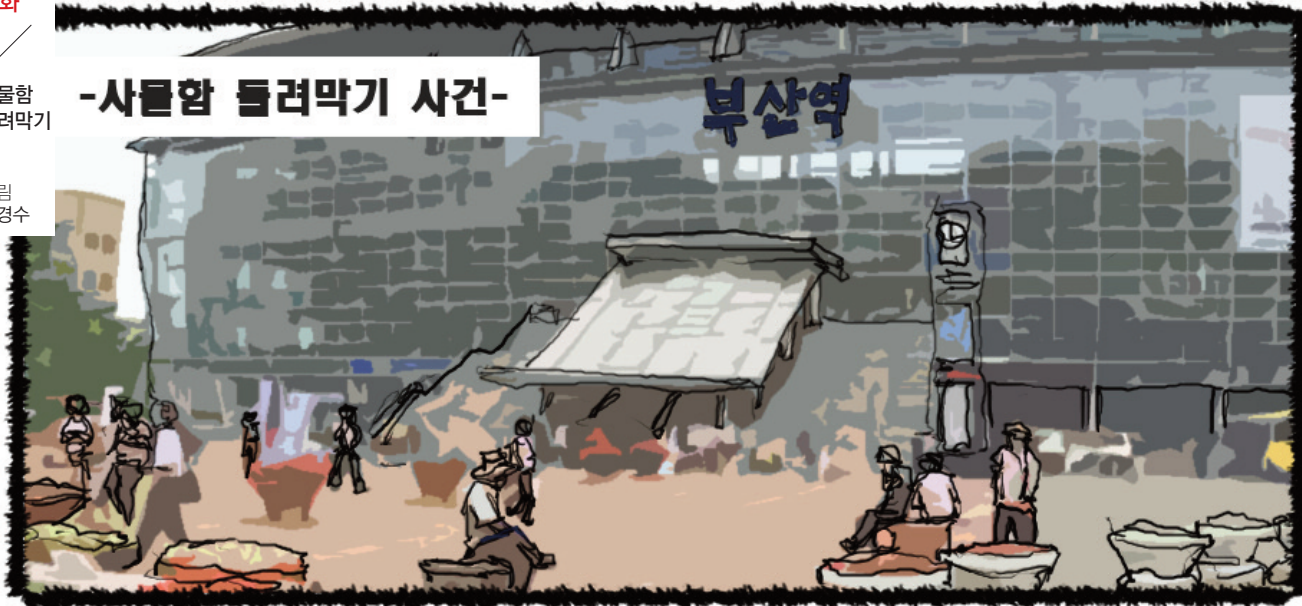
학교 전공 수업 당시 노숙자는 路(길
로)를 써서 길에서 자는 사람이 아니라
露(이슬로)를 써서 바람 먹고 이슬 덮고
잔다는 교수님의 말이 생각났다. 이제
야 와 닿는 순간이었다. 기억력도 뛰어
났고 해박했던 분이기 때문에.

낯선 아침 계간지에는 이들의 이야기
가 가득하다. 부산 시민 모두가 보기 시
작한다면 나처럼 이런 인식이 바뀔 수도
있을 텐데! 발행하는 것도 좋지만 계간
지가 부산 곳곳에 배치된다면 노숙자들
에 대한 인권도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
을까? 물론 노숙자에 대한 이야기를 일
반 시민들과 조금이라도 더 소통하도록
알리려는 부산문화재단의 노력에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작년, 그리고 올해 2014년 어김없이
노숙자들과의 추억 아닌 추억을 남기고
있는 나는 앞으로도 어떤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지 기대해본다.

-사물함 돌려막기 사건-

부산역



으



왜 이리 덥지?



어랏?

벌써...

봄이잖아?...



이 무거운 옷들을

어디다 보관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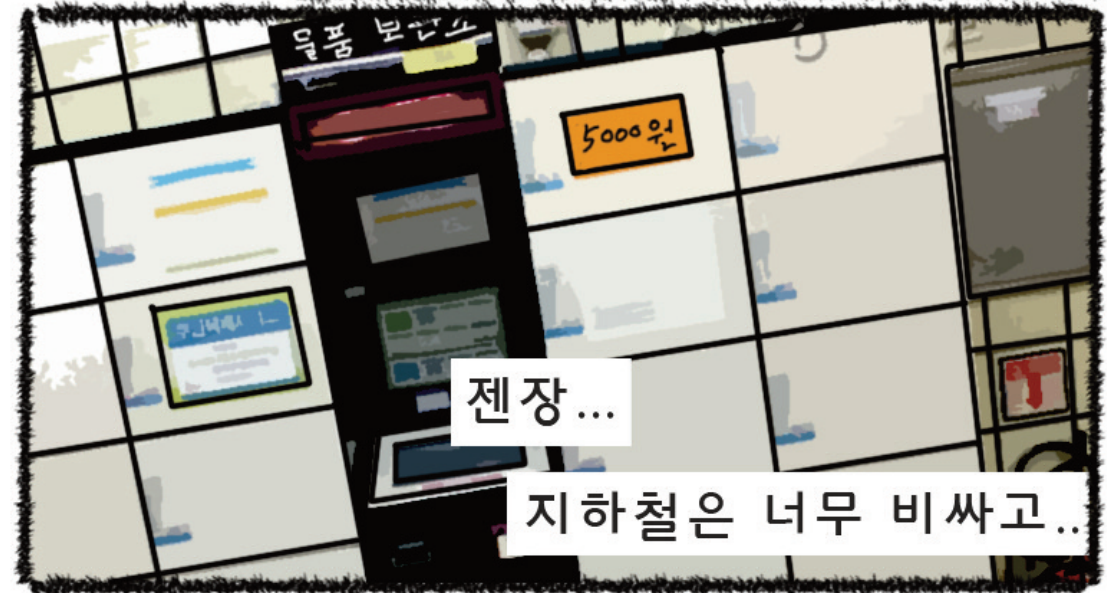
기차역 사물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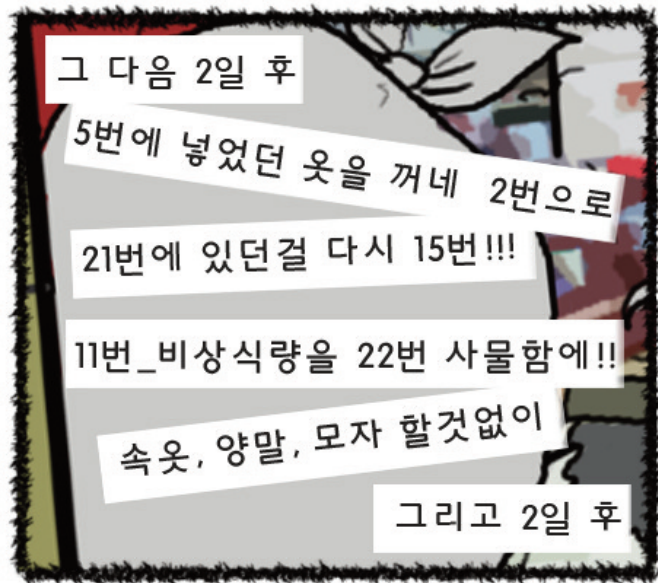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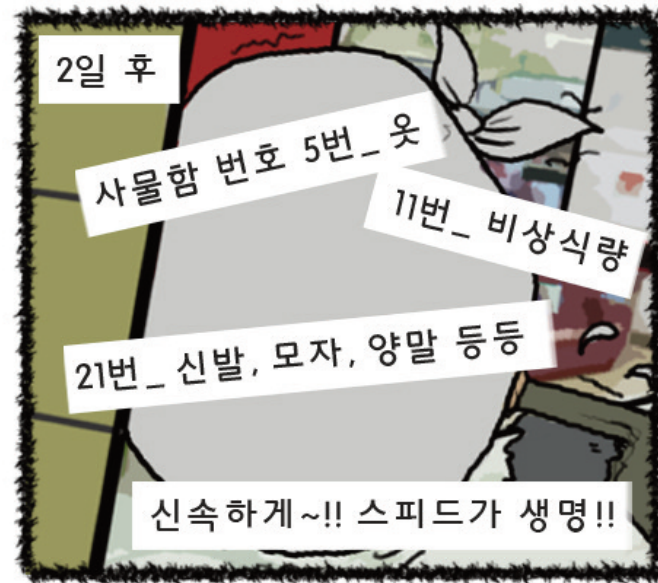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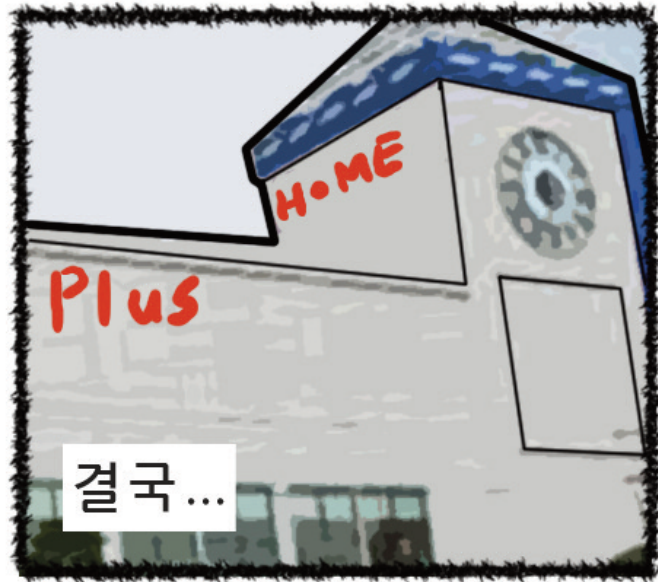
경비가 너무 삼엄하고..



젠장...

지하철은 너무 비싸고..





-사물함 돌려막기 사건-



예경수_ 부산에서 캐리커처 작가를 하고 있는 예경수라고 합니다. 그림을 전공했지만 좋은 기회가 없어 아직 날개를 달지 못한 예술가 늘 창작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며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느끼면서 살고 싶은 예술가.

달

도시는 달을 끄고
불을 밝혀 낮을 연장시킨다
언제 달을 봤던가
달은 정전돼있었다
산들이 웅성거리며 달을 밀어올리고
나는 오랫동안 캄캄한 산길에 있었다
그래 어둠에 둘러싸여 있노라니
마음속 깊은 골짜기가 보이고
아래로 흐르는 물이 보이고
그 물결 위에 달빛이 어린다
언제부터 잃어 버렸을까

나의 반, 대지의 반, 세계의 반
달이 해의 잔해라면
저 하늘의 밤 별들도
문틈에 밀려오는 햇살에 부서진
작은 먼지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밤의 표상은 저리 둥글고
낮의 배후는 저리 영롱하다
해는 살갓을 비추나
달은 희디흰 뼈를 비춘다
돌아 보느니 우리는
세상의 반만 가지고 살고 싸웠느냐



김원석_ 현재 금정희망의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취미로 원예, 난 학교를 다니시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종교에 관한 글쓰기를 즐겨 하시는 편이다.



여기에, 언젠가, ‘마음의 사물함’을 놓는다.

저는 영화비평을 공부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3년 전쯤 노숙인들이 주인공인 영화를 보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그 영화를 찍은 감독과 술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감독에게 그 영화 속 노숙인들의 하루하루가 활기찬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 감독은 그저 하루하루를 재밌게 보내는 어느 노숙인들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사이에는 언쟁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주위의 만류에도 언성이 자꾸 높아지자 보다 못한 어느 교수

“언젠가 우리와 그들이 아닌
너와 나 모두가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사물함’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분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을 모두 본 적이 있나요? 저런 분들도 있
지 않을까요?”

물론 그 말은 중재를 위한 것이었지만, 저는 갑자기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건 누가 거리의 그들을 더 많이 보았느냐, 누가 더 대화를 많이 나누었느냐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노숙인’이라는 틀 안에서만 말할 줄 알
았지 ‘개인’으로 말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노숙인에 대해 말
을 하거나 글을 써야 할 때 어떤 ‘공백’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타자들, 소외된 자
들, 배제된 자들은 이야기하면서, 노숙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지금 몸담고 있는 모퉁이극장 대표님으로부터 ‘찾아가는 영화관’
공모사업에 지원할 거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오래 미뤄둔 숙제가 떠
오른 것처럼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조금씩... 마음에 크
게 자리 잡은 공백이 매만져졌고, 여기서 공백이 더 커지면 돌이킬 수 없겠구나, 그
것이 더 무서운 일이겠구나 싶어 뜻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바로 기회가 오진 않았습디만, 지금 저와 모퉁이극장은 올해 선정단체인
‘나무필름’의 사례 깊은 협업제안 덕분에 노숙인분들과 함께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6일은 첫 상영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내일 만나게 될 한 분 한 분을 개
인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중얼거리느라 깊이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부산지역 상영장소로 향했고, 다행히 ‘나무필름’ 기존 작가의 도움으로 상영회 준비
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영 시작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저는 여
러 걱정이 앞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를 낯설어하지 않을까? 한 분 한 분 어떤 표
정으로 맞이해야할까? 무슨 말을 하지? 오늘 본 영화? 앞으로 보고 싶은 영화를 물
어볼까?’



저는 한 분씩, 때론 두 분씩 상영회
장소로 들어오는 노숙인분들을 보며 안
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너도나도 자연스레 간식을 집어
자리에 앉았고, 영화를 보다 밖으로 나
가기도,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그
리고 잠을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뭔가 큰 착각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
다. 그분들에게 오늘은 영화를 보기도,
이후 강연을 듣기도, 급식을 먹기도 하
는 날이지, 저와의 첫 만남을 준비해야
하는 날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공간
에서 낯선 사람은 저 하나 밖인데, 왜 저

는 그분들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마치 저는 어떤 우월함에 취해, 아무
리 그들이 개개인이라도 언제나 보살핌
과 배움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 건 아닐
까요? 그래서 그들의 소소한 일상을 무
가치하게 규정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날 제가 첫 상영회를 끝내고 알게 된
사실은 ‘나는 그들을 모른다는 것’ 딱 하
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3번의 상영회
를 거치면서 속으로 작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학교에 간다
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영화관을 다닐 거

야. 거기서 내가 느낀 솔직한 경험만을 사실로 받아들일거야.’

역수 같은 봄비가 내리는 오늘... 저는 첫 연재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사실을 알
게 되었습니다. 우리네 봄이 개나리들과 무더진 감각이 피어오르는 덧셈의 계절이라
면, 노숙인이 맞이하는 봄은 겨울에 품었던 옷가지들과 짐들의 거처를 걱정해야하는
뺄셈의 계절이라는 것들요. 아마도 제가 이 지면에 쓴 경험 또한 덧셈과 뺄셈처럼 단
순한 공식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지면이 다른 누군가의 여러 경험
들로 드나들 수 있다면, 함께 열어보고 더하고 내어갈 수 있는 ‘사물함’이 될 수 있다
면, 언젠가 우리와 그들이 아닌 너와 나 모두가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사물함’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김영광_ 모퉁이 극장 기획팀장. 현재 부산지역 ‘찾아가는영화관’ 스텝으로 참여중이다.

마을기업 '희망나눔 세차장' 방문기

문화나눔 자원봉사자 2기 홍보팀에서 활동 중인 김동훈 (부산대학교 사회복지과)은 전국에서 유일한 쪽방주민자활을 위한 마을기업 '희망나눔 세차장'을 방문하여 취재활동을 벌였습니다.



01_ 희망나눔 세차장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쪽방 주민들의 자활에 정부가 관심을 표명하면서 안행부에서 직접 기획하고 주관한 일자리 사업으로서 희망나눔세차장 마을기업이 부산 동구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희망나눔 세차장은 전국 유일의 쪽방주민자활을 위한 마을 기업이며, 정부에 의해 기획되고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태생적인 특성이 일반적 마을 기업과 다르며 출범 당시 팀장 1명 쪽방주민 2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영준 팀장님과 쪽방주민 5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세차업으로 살아남기에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가진 기술력과 자본으로는 안정된 세차장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희망나눔 세차장이라는 마을기업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한 공동체 다수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덧붙이자면 새로운 트렌드의 사회적 기업을 통해 현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여러 가지문제점(일자리,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02_ 지난 10월 개소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동안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발견한 쪽방 주민의 발전은 어느 정도이며 또 한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발전 가능성과 한계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가능성과 한계점은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세차장이 일년이 되지 않아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단계이므로 큰 발전을 보기 보다는 발전하기 위해 쪽방 주민들과 상담소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초반이니깐요..

한계점이라 하면 첫 번째로 외부의 인식이 가장 걱정되지요.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기업적인 영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생적인 한계는 우리 주민들과 제가 극복해야할 장기적인 과제이지요. 쪽방주민 중 70-80퍼센트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일용직 노동자들로 소득수준이 낮은데다가 상당수가 노숙경험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생활환경과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 희망나눔 세차장은 이익을 민주적 분배, 공동으로 부담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세차장 구성원들이 노숙인과 쪽방 주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터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내면적인 부분을 배려해가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크기 때문에 작업장 내에서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자체가 아직 서툴고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앞서 지적한 외부적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지지 내부적으로는 서로 협력하는 자세의 문제점들이 아직까지도 쉽게 극복되지는 않고 있지만 희망나눔세차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도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많이 성장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3_ 쪽방주인이 아닌 서영준 팀장님이 이 일에 참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따로 있다기에 그 사연을 물었다.

방송이나 신문 등에는 소개된 내용이 아닌 일종의 에피소드라 할 수 있다며 서영준 팀장님은 원래 복지 쪽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우연한 기회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최근 5-6년에 두 가지 일을 병행했는데 하나는 영화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영화제작관련 일을 하였으나 2009년 이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시민단체의 활동가(상근자)로도 일하며 두 가지 일을 병행하던 중에 부산문화재단과 인연이 닿아 2012년, 2013년에 찾아가는 영화관 프로젝트의 수행업체로 선정되어 2년 동안 사업을 수행한 게 인연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2명과 함께 노숙인의 영상교육 및 활동에도 적극 가담하면서 2013년 노숙인 영상제작단 프로젝트 수행 중 동구 쪽방상담소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상담소장님인 안하원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목사님과는 시민단체

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였으나 동구쪽방상담소장님인 줄은 모르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것이 두 사람 다 직업이 두 개라서 생긴 에피소드란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구쪽방상담소장님은 팀장님을 시민단체 활동가로만 알고 노숙인 영상제작단과의 관계를 전혀 모른 채 만나게 되었으며 그 무렵 희망나눔 세차장 출범식을 앞두고 세차장 팀장 자리가 공석인 바람에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높이 사서 팀장을 권유하게 된 것이다. 팀장님은 처음에는 사양하였다. 본인이 2년간 찾아가는 영화관을 하면서 노숙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왔었고 생각만 가지고 선뜻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책임감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하여 사양했으나 거듭되는 부탁에 결국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세차장 관리 역할과 함께 직원들과 세차도 같이 하고 있다. 우연한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고 하게 된 이후로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세차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이 일에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06_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일자리는 큰 사회적 문제이면서 현재 자본주의 시장체제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근로 취약계층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을 좀 더 확대시켜 사회적 공공성을 확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나눔세차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협력이 다른 것 보다 배 이상 필요하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

히 우리 사회의 인식은 너무 빈약하고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제도적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기 싫다는 책임감과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심적인 압박감에도 쉽게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없으며 끝까지 해보겠다는 오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으니 지켜봐주었으면 합니다.

김동훈 현재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 문화와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이 있어 그 둘의 큰 뜻을 이루고자 부산문화재단 별무리 2기 홍보팀에서 활동 중인 꿈 많은 학생





김씨의 익숙한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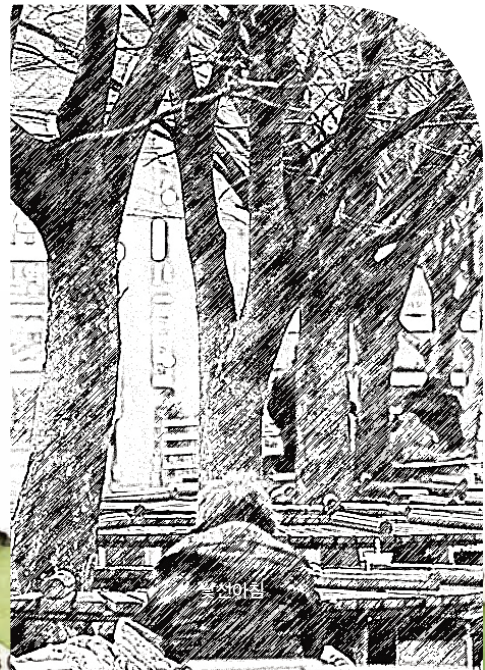
(제공단체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월

- ▶오전 10:30 부산진역 카스테라빵 1, 요구르트 2

화

- ▶오전 07:20 광안리 남부민교회 경비실 300원-400원-500원 (선착순)
- ▶오전 09:20 매달 첫 주 화요일 양정역 2번 출구 양정교회 주차장 경비실 500원
- ▶오전 10:00 초량역 5번출구 삼일교회 500원
- ▶오후 01:00 못골역 4번출구 성결교회 500원



수

- ▶오전 09:20 대티역 1번출구 산정현교회 500원 (선착순50명)
- ▶오전 10:00 첫째주~셋째주 양정역 2번출구 제일교회 1,000원
- ▶오후 01:30 부산진역 7번출구 수정교회 육개장사발면 1, 요구르트 1
- ▶오후 02:00 연산동 양문교회 예배 후 1,000원



목

- ▶오전 09:30 좌천역 1번출구 부산제일감리교회 커피1, 육개장사발면1
- ▶오전 09:00~09:20 매월 마지막주 부산진역 1번출구 성일교회 새우탕면 1

금

- ▶오전 09:20 경성대 부경대역 5번출구 용호동 한빛교회 1,000원
- ▶오전 11:00 거제역 8번출구 법원 뒤 무상사 식판식사 (번호표 확인)

토

- ▶오전 08:30 매월 마지막주 체육공원역 2번출구 대지장로교회 예배 후 1,000원 지하에서 아침제공
- ▶오전 11:00 거제역 8번출구 법원 뒤 무상사 식판식사 (번호표 확인)



일

- ▶오전 07:00 양정역 2번출구 양정중앙교회 예배 후 1,000원 지하에서 국수 제공
- ▶오전 09:00 온천장역 5번출구 소정교회 9시 예배 후 2,000원 10시 20분에 점심제공
- ▶오후 02:00 남포역 6번출구 화평관 예배 후 1,000원

가난한 휴머니즘

『가난한 휴머니즘 - 존엄한 가난에 부치는 아홉 통의 편지』
-장 베르트랑 아리스트 지음. 이두부 옮김. 이후, 2007

“체념하면서 죽는 방법과 폭력적 폭발을 통해 죽는 방법, 이 두 가지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집단적 결집이 바로 제 3의 길입니다. 이것은 인간 에너지의 어쩔 수 없는 집중입니다. 우리에게 돈은 충분하지 않지만, 사람만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난 당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에게 희망이라는 말을 건넬 자신이 없네요. 어느새 세월호가 침몰한 지 20일이 넘었다는군요. 여전히 수색작업은 진행 중이고, 단원고 앞으론 날마다 운구차가 스쳐 지나가고요. 그러는 사이 일부의 사람들은 슬픔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오고, 각종 예능 방송도 다시 정상 방송을 하더라구요.

참 이상하죠. 학생들이 수백 명 죽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려 해요. 잊고 싶은가 봐요.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믿고 싶은가 봐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어요. 혹시 기

억어나요? 예전에 당신이 처음 거리로 내몰렸을 때. 누가 당신을 쳐다봐주던가요? 당신에게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나 주던가요? 모두 자신들이 살기에 바빴습니다. 당신 하나쯤 거리의 부랑자가 되어도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기에 오늘과 같은 참담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지요. 아마 당신들을 지켰다면, 당신들에게 관심을 조금만 가졌다면 상황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무 쏘에 자신 감마저 상실한 당신을 돌봐야한다는 생각을 지닌 이라면 사람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안다는 말이니깐요.

혹여, 아이티의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대통령을 아나요? 그는 아이티에서 대통령을 4번이나 했는데 4번 모두 군사 쿠데타로 인해 물러나게 돼요. 그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삶이 과거보다 좀 더 나아지는데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면서도 부자들과 친하게 지내기는커녕, 그들이 하고

자하는 일마다 방해했거든요. 그는 언제나 부자들의 돈보다 가난한 민중들이 먼저였어요.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돈을 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스스로 깨우치고 그들만의 희망을 만들어나가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휴머니즘』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용기와 사랑이 담긴 존엄한 가난에 부치는 아홉 통의 편지입니다. 대체 존엄한 가난이 뭘까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왜 돈이 없으면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돈이 아닌 행복은 없는 걸까요? 이젠 인간적인 것마저도 돈으로 환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군요. 그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발보둥치는 우리에게 희망은 뭘가요? 사람인가요? 돈인가요?

이 질문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명쾌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는 어떤 답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긋난 시대를 근근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모두들 돈에 방점을 찍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재미난 건 극소수를 제외하곤 다들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돈을 벌고 또 버는데 생활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 가능할까요?

사실 이건 우리가 이해하고자 해서 이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는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돈의 힘이 강력해질수록, 더 가난하고 노숙자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면 부가 축적될수록 인간적인 것들을 상실해버리거든요. 장 아리스트는 이 걸 다섯 손가락에 비유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엄지손가락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엄청난 속도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은 경제적 비탄으로 점점 가라앉기만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거리는 하루하루 멀어져만 갑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적인 고통에 대해서 부자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이러한 것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이 노숙을 하는 게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당신은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당신 하나쯤 사라진대도 세상은 또 잘 굴러갈 거예요. 원래 당신은 그들에게 없었던 사람이니깐요. 그러니 더더욱 움직여야 해요. 당신이, 아니 당신들이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인지 그들에게 보여야 해요. 그들에게 사람이 제일로 무섭다는 걸 보여주어야 해요.

그래야 나도 당신도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다시 이해 불가능한 죽음을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그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라도 말이에요. 근데 이젠 좀 바꾸고 싶어요.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그리고 그 삶에 간절함을 더하라고. 지금은 간절하지 않으면서 그저 숨만 쉬면서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도 삶을 놓진 마세요.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에너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니깐요.

정영민_ 삶을 꿈꾸고 삶을 제대로 펼치려고 최근, 생활전선으로 뛰어든 여자, 여전히 책에, 사물에 더 집중하고 있다.

밥 먹으며 씩얼 하나에 스민 햇살을 잘게 씹는다. 콩알 하나에 배인 흠내음, 농부의 손길 되짚는다. 삶은 소화하는 것처럼, 밥을 씹는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인생을 삼키는 일은 아닐까? 다운 밥 한 주걱 퍼주는 손길이 다정하다. 식판 위에 정성을 수북이 담고, 사랑을 한 국자 퍼 담아 오늘도 감사로 배를 채운다. 밥을 먹었지만 마음이 부른다.



식사 정보



아침

매주 수요일 06:30 두춧대교회 국밥
매주 금요일 06:30 두춧대교회 국밥



부산진역 8번출구 무료급식소

점심

월 10:30 기장 살림회복선교센터 카스테라1, 요구르트2
12:00 물만골 사랑나라 식판식사
화 12:00 밥퍼 식판식사
12:00 대한적십자(매월셋째주) 식판식사
수 12:00 김해 가나안교회 식판식사
14:00 찾아가는영화관 빵, 커피
목 12:00 신빈회 식판식사
금 12:00 밥퍼 식판식사
토 12:00 김해 가나안교회 식판식사
일 12:00 무지개 식판식사

저녁

목 16:30 수영로교회 식판식사
금 17:00 명장동 예인교회 국밥
토 17:00 한우리 식판식사
일 17:00 신빈회 식판식사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응급잠자리 현황

1. 응급잠자리 설립일자 : 2008년 1월 2일

2. 응급잠자리 면적

순서	장소	단위(mm)	넓이(㎡)	평수	취침 가능인원
			소수점3자리에서 반올림		
1	취침실	7600×11800	89.68	27.12	27.12
2	코골이방	2513×5800	14.58	4.41	4.41
3	산규방	2400×3000	7.20	2.18	2.18
4	여자방	3000×3000	9.00	2.72	2.72

3. 응급잠자리 근무자

- 가. 직원 : 2명
나. 자활근로자 : 3명

4. 응급잠자리 입소조건

- 가. 입소대상
- 1) 본 시설에 입실을 희망하는 자
 - 2)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경찰관서 등에서 의뢰되어 온 자
 - 3) 기타 시설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이용제한 대상

- 1) 당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 : 1주일간 이용정지
- 2) 건강(재)검진 미검자 : 건강(재)검진 결과 확인 시 까지 이용정지
- 3) 음주자 : 당일 이용 금지
- 4) 약물의존자 : 약물치료 관련 프로그램 참여시까지 정지
- 5) 시설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자 : 3개월 이용 정지
- 6) 금품갈취자, 기물파손자, 폭행자 : 3개월 이용 정지
-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익일 관할 동/구청에 통보
- 8) 기타 단체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자

5. 응급잠자리 이용현황

(2013년 12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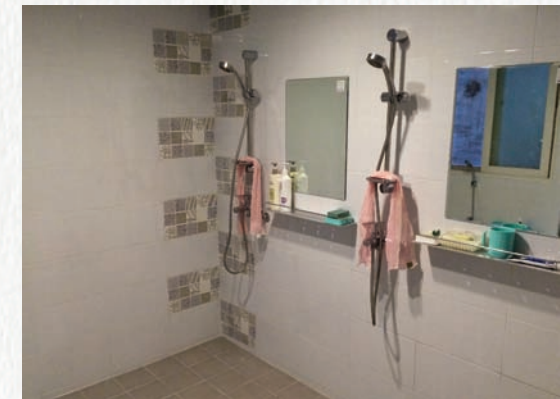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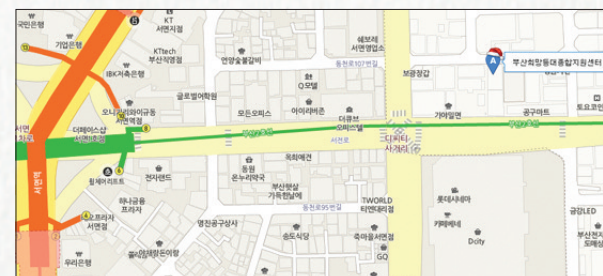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평균인원	50	49	39	29	25	21	21	21	22	16	17	18	328

6. 응급잠자리 위치 및 연락처

가.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 (전포2동 667-3)

나. 연락처 : 051)463-1127

다. 위치



Review

2014 찾아가는 영화관 6월~7월 상영작 안내

- 상영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2시
- 장 소 : 부산진역 무료급식소



영화_ 전설의 주먹
감독_ 강우석
출연_ 황정민(임덕규), 유준상(이상훈)
상영일_ 2014년 6월 4일

‘전설’이라 불렸던 그들이 맞붙어 승부를 가리는 TV파이트 쇼 ‘전설의 주먹’, 세월 속에 흩어진 전국 각지의 파이터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고, 쇼는 이변을 속출하며 뜨겁게 달아오른다. 그리고 화제 속에 등장한 전설의 파이터 세 사람에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다. 말보다 주먹이 앞섰던 그 시절,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각자의 삶을 살던 세 친구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밝혀지면서 전국은 ‘전설의 주먹’ 열풍에 휩싸인다. 마침내 역대 최고의 파이터들이 8강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상금 2억 원을 놓고 벌이는 최후의 파이트 쇼 ‘전설대전’의 막이 오르는데….



영화_ 감시자들
감독_ 조의석, 김병서
출연_ 설경구(황반장), 정우성(제임스)
상영일_ 2014년 6월 18일

범죄 대상에 대한 감시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경찰 내 특수조직 감시반. 동물적인 직감과 본능으로 범죄를 쫓는 감시 전문가 황반장이 이끄는 감시반에 탁월한 기억력과 관찰력을 지닌 신참 하윤주가 합류한다. 얼마 후 감시반의 철저한 포위망마저 무용지물로 만든 범죄가 벌어진다. 단 3분 만에 벌어진 무장 강도사건. 얼굴도, 단서도 남기지 않은 그들의 존재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철저하게 짜인 계획 하에 움직이며 1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범죄 조직의 리더 제임스. 황반장과 하윤주는 모든 기억과 단서를 동원해 놔를 쫓기 시작하는데...



영화_ 킹콩을 들다
감독_ 박건용
출연_ 이범수(이지봉), 조안(박영자)
상영일_ 2014년 6월 11일

88올림픽 역도 동메달리스트였지만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둔 후 시골여중 역도부 코치로 내려온 이지봉. 역도선수에게 남는 건 부상과 우락부락한 근육뿐이라며 역도에 이골 난 그가 가진 거라곤 힘 밖에 없는 시골소녀들을 만났다. 개성도 외모도 제각각이지만 끈기와 힘만은 세계 최강인 순수한 시골소녀들의 열정에 감동한 이지봉은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위해 합숙소를 만들고, 본격 훈련에 돌입한다. 맨땅에서 대나무 봉으로 시작한 그들은 이지봉의 노력에 힘입어 어느새 역기 하나쯤은 가뿐히 들어 올리는 역도선수로 커나가고 마침내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게 되는데….



영화_ 은밀하게 위대하게
감독_ 장철수
출연_ 김수현(원류환), 박기웅(리해랑)
상영일_ 2014년 6월 25일

북한의 남파특수공작 5446 부대. 20000:1의 경쟁률을 뚫은 최고 엘리트 요원 원류환, 공화국 최고위층 간부의 아들이자 류한 못지않은 실력자 리해랑, 공화국 사상 최연소 남파간첩 리해진. 세 사람은 5446 부대의 전설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조국통일이라는 원대한 사명을 안고 남파된 그들이 맡은 임무는 어처구니없게도 달동네 바보, 가수지망생, 고등학생이다. 전달되는 명령도 없이 시간은 흘러만 가고 남한 최하층 달동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상에 익숙해져 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전혀 뜻밖의 은밀하고 위대한 임무가 내려진다.



영화_ 설국열차
감독_ 봉준호
출연_ 크리스 에반스(커티스), 송강호(남궁민수)
상영일_ 2014년 7월 2일

기상 이변으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지구. 살아남은 사람들을 태운 기차 한 대가 끝없이 궤도를 달리고 있다. 좁고 배고픈 사람들이 바글대는 빈민굴 같은 맨 뒤쪽의 꼬리 칸,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이 술과 마약까지 즐기며 호화로운 객실을 뒹굴고 있는 앞쪽 칸. 열차 안의 세상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기차가 달리기 시작한 17년째, 꼬리 칸의 젊은 지도자 커티스는 긴 세월 준비해 온 폭동을 일으킨다. 그들 앞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화_ 용의자
감독_ 원신연
출연_ 공유(지동철), 박희순(민대령)
상영일_ 2014년 7월 23일

조국에게 버림받고 가족까지 잃은 채 남한으로 망명한 최정예 특수요원 지동철.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아내와 딸을 죽인 자를 찾는 것뿐이다. 놈의 행적을 쫓으며 대리운전으로 살아가던 동철은 유일하게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박화장의 살해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죽기 전 박화장이 남긴 물건을 받아 든 동철은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모두에게 쫓기게 된다. 하지만 자신만의 타겟을 향한 추격을 멈추지 않는다...



영화_ 관상
감독_ 한재림
출연_ 송강호(내경), 이정재(수양대군)
상영일_ 2014년 7월 9일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재 관상가 내경. 처남 팬헌, 아들 진형과 산속에 칩거하고 있던 그는 관상 보는 기생 ‘연홍’의 제안으로 한양으로 향하고, 연홍의 기방에서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는 일을 하게 된다. 용한 관상쟁이로 한양 바닥에 소문이 돌던 무렵, 내경은 김종서로부터 사헌부를 도와 인재를 등용하라는 명을 받아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수양대군이 역모를 꾀하고 있음을 알게 된 그는 위태로운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 한다.



영화_ 겨울왕국
감독_ 크리스 벅, 제니퍼 리
출연_ 엘사, 안나
상영일_ 2014년 7월 30일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자매가 온다! 서로가 최고의 친구였던 자매 엘사와 안나. 하지만 언니 엘사에게는 하나뿐인 동생에게조차 말 못할 비밀이 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신비로운 힘이 바로 그것. 엘사는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힘이 두려워 왕국을 떠나고, 얼어버린 왕국의 저주를 풀기 위해 안나는 언니를 찾아 환상적인 여정을 떠나는데……



영화_ 변호인
감독_ 양우석
출연_ 송강호(송우석), 김영애(순애)
상영일_ 2014년 7월 16일

1980년대 초 부산. 뺨도 없고, 돈도 없고, 가방 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 부동산 등기부터 세금 자문까지 남들이 뭐라든지 탁월한 사업수완으로 승승장구하며 부산에서 제일 잘나가고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다. 10대 건설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으며 전국구 변호사 데뷔를 코앞에 둔 송변. 하지만 우연히 7년 전 밥값 신세를 지며 정을 쌓은 국밥집 아들 진우. 그곳에서 마주한 진우의 믿지 못할 모습에 충격을 받은 송변은 모두가 회피하기 바빴던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결심하는데...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낮선아침’에서 찾아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비슷한 조건을 가진
구직자들이 적은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하는 지금,
취업에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취업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취업으로 이끄는 정보들이 무궁무진합니다.

- 부산고용센터 T.051)860-1919 시청역 1번 출구
- 새희망 고용지원센터 T.051)463-7709 초량역 9번출구 (프랑스문화원 뒤)
- 부산광역시 일일취업안내소 T.051)635-1919, 051)631-9199 초량역 9번출구
- 안인환 직업소개 T.051)469-2070 부산역 7번출구
- 전진 인력개발 T.051)464-1604 부산진역 5번출구

낮선아침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1. 노숙인 작품을 모집합니다. (시, 소설, 그림 등)
2. 노숙인 사진모델 구합니다.
3. 일반인 독자투고 받습니다.
4. 노숙인 분들을 달리 부를 이름 공모합니다.
※ 모두 소정의 원고료 있습니다.
문의_ 부산문화재단 문화복지팀 T.051)745-7264
5. 홈리스 분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을 찾습니다.
문의_ 동구쪽방상담소 사례관리사업 T.051)462-2017



제작 리뷰

장병윤 | 국제신문 논설위원, 낮선아침 편집고문

잔혹한 봄이다.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신록의 계절에 수많은 생명이 차가운 바다에 수장됐다. '세월호'는 오늘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묻고 있다. 생명의 귀함과 인간 존엄이 망가진 우리의 삶에 깊은 회의를 갖게 한다. 돈이 모든 가치의 잣대가 되는 문명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이 근원적 물음을 통해 성찰하고 변화해야 할 것이다. 비탄의 세상으로 나온 이 작은 책자가 따뜻한 위로가 되고 변화의 씨앗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재안 | 부산 동구쪽방상담소 상담사, 낮선아침 편집위원

여전히 낯설다. 여전히 낯선아침이다. 반복되는 일상이 어쩔 이다지도 낯선지 세월은 황망하게 떠나가고 내 마음의 보석 상자는 애써 보석이라 자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구호는 정말 구호에 불과한지 오늘도 부산역에, 초량 지하차도에 주무시는 분들은 여전히 자고 있는지 누워만 있고 소위 시민들이라는 백성들은 자기만의 보석 상자를 찾아 끝없이 분주하게 걸어가고 있다. 옆이나 아래는 보이지 않고 앞만 보인다고 자신을 속이면서, 내 마음의 보석 상자는 배제되어 짝한 낙인 속에 머문다.. 지금도

최주호 | 부산 금정희망의집 관장

'낮선아침'이 희망을 꿈꾸는 낮선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덧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따뜻한 삶이 되기를...

김현수 | 낮선아침 편집위원

봄이 오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기다림과 기대와 꿈조차 다 사라진 지금, 몸은 큰 여인숙과 같고 목숨이란 거리에서 하루 밤 묵는 나그네와 같다. 오늘 여관에 잠시 머물다 떠날 손님과 같은 우리네의 삶, 무엇을 그리도 애착 할 것이 많은가?

박우신 | 낮선아침 편집위원

이번호의 주제는 사물함에 자꾸 나는 마음의 상자가 떠오릅니다. 사물함이 아니라 사심함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거나 굳게 닫아 놓고 꼭 꼭 숨겨두었던 내 마음의 상자를 뚫고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니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암흑 같던 마음이 조금은 환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들어있는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는 아무리 비루한 삶일지라도 나에게겐 소중한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이민경 | 부산문화재단 문화복지팀

유난히도 낯설었던 봄입니다. 활기차기보단 정제 되어있고, 희망차기보단 불안함이 더 큰 봄이라 이리도 늦었나봅니다. 새로운 만남과 이별의 과정들이 이후 더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2013 노숙인 영상제작단의 영원한 활동멤버이자 낮선아침의 필진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故김성태님의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희망나눔세차

당신의 세차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일반차종 가격표

차종	외부 또는 내부세차	내·외부세차 + 왁스	실내크리닝	고급광택
경차 (마티즈, 모닝)	10,000	15,000	100,000	150,000
소형차 (제1종 1800cc이하)	12,000	18,000	120,000	180,000
중형차 (제1종 2000cc이하)	14,000	20,000	140,000	200,000
대형차 (제1종 2000cc이하)	16,000	22,000	160,000	220,000
초대형 (제1종 2000cc이하)	18,000	25,000	180,000	250,000

* 부분 실내크리닝과 고급광택은 상담 후 가격 협의 가능합니다.

SUV 가격표

차종	외부 또는 내부세차	내·외부세차 + 왁스	실내크리닝	고급광택
통박 / 스포티지 / 코란도 / 카렌스 / 스타워 / 보물	18,000	25,000	180,000	250,000
엑스포트 / 테라칸	20,000	27,000	200,000	270,000
트라이 / 카니발 / 엑티언	22,000	29,000	220,000	290,000
그랜트카니발 / 스타렉스	25,000	30,000	250,000	300,000

* 부분 실내크리닝과 고급광택은 상담 후 가격 협의 가능합니다.

(주)희망나눔세차 T.051)462-2064
연회원 가입시 특별우대가능 아동식 세차 차량보유 (출장가능)

하나. 세차장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구쪽방상담소 등록 → 쪽방지원 → 희망나눔 세차장 면담

둘. 일반인들이 세차를 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승용차 세대 이상 (출장세차 가능)

• 희망나눔 세차장 연락 및 방문

: 부산시 동구 홍곡로 28-1 (초량동 647-14)

